‘SOAF’ 광주 작가들 톡톡튀네

〈서울오픈아트페어〉

전국 80개 화랑 참여 최대 그림장터

허진·고근호·박동신 등 30여명 참가

고근호 작 ‘배트맨&로빈’

현대미술은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양분하고 있다.

비엔날레가 다소 실험적인 작품이 출품된다면, 아트페어에는 화랑가의 검증을 끝낸 작가와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예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최근 아트페어는 미술품을 거래하던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스타 작가’를 발굴하는 산실이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광주 작가들이 전국 80개 화랑이 참여하는 그림장터인 제5회 서울오픈아트페어(SOAF·22~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도전장을 내민다.

광주에서는 시안갤러리, 나인갤러리, 갤러리자리아트 등 3개 화랑이 참여해 작가 3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허진(전남대 교수)·류재웅·김유홍·이효문·장지환·손봉채·김영태·이조흠·박구환·한희원(이상 시안갤러리), 고근호·정운학·이호국·신양호·박태후·최고봉·김숙빈(이상 나인갤러리), 박상화·신호윤·최정희·서남수·장현우·박동신·임창수·남선용·한부철·김형섭·배삼숙·윤기호·조은신·백애경(이상 갤러리자리아트)씨의 작품을 선보인다.

허진씨는 전기공구 등 인류가 만들어낸 다양한 물건과 동물을 한 공간에 형상화한 ‘유목동물’ 연작을 선보이고, 손봉채씨는 거리 풍경을 그린 여러장의 그림을 겹쳐 입체감이 들게 한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연작을 출품한다.

고근호씨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마이클 잭슨과 마릴린 먼로, ‘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 아름다운 꿈을 꾸게하는 ‘어린왕자’ 그리고 배트맨과 마징가 Z 등을 재해석 한 작품을 내놓았다.

박동신씨는 맨드라미 꽃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신호윤씨는 종이를 잘라 독특한 형상을 만든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아트페어 본전시에는 80여개 화랑이 내놓은 5500여점이 전시돼 볼거리가 풍성하다.

참여화랑이 추천한 ‘40대 이하 젊은 작가’ 10명의 작품을 따로 모은 ‘영제너레이션 아트 아티스츠 10’ 전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사진과 회화 작품을 선보이는 ‘SOAF 위드 CEO’전도 곁들여진다.

배우 고아성과 엄태웅, 하정우 등 연예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스타예술프로젝트’, 가격 부담을 낮춘 ‘200만원 특가전’, 조각가 10명이 참여하는 ‘어크로스 더 스페이스’ 전 등 다양한 특별전도 펼쳐진다.

허진 작 ‘유목동물’

한편 지난해 열린 제4회 서울오픈아트페어는 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4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산교회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창립 50주년 맞아 ‘풀꽃동산…’ 개관, 장서 5000권·열람실·북카페도

자원봉사자 15명이 운영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지산교회 본당건물 1층에 둥지를 튼 ‘풀꽃동산 작은도서관’은 학생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풀꽃동산작은도서관’ 제공〉

광주시 동구 지산1동 광주지산교회(담임목사 안기영). 이곳에 지난 17일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이름도 예쁜 ‘풀꽃동산작은도서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을 문을 연 적은 종종 있지만 교회가 지역민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작은도서관의 발상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의지에서 시작됐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지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궁리하던 끝에 여러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 지난해 가을에는 바자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지산 1, 2동 어려운 이웃에 연탄 300장씩 전달했고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을 연 것이다.

교회 본당건물 1층에 둥지를 튼 작은도서관은 132㎡(약 40평) 규모에 장서 5000여 권을 갖추었으며 학생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30여 석의 열람석을 확보했다. 또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토론을 하고 휴식과 대화를 즐길 수 있는 33㎡(약 10평) 규모의 북카페도 함께 문을 열었다.

작은도서관이 개관되기까지는 신도와 지역민의 도움이 컸다. 작은도서관이 개관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들은 십시일반 모금을 해주었고 헌책을 기증해 주었다. 지난 2월에는 국회도서관에서 500권의 도서를 보내 오기도 했다.

작은도서관은 직원 없이 순수 자원봉사자 15명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요일에 따라 한나절씩 근무하면서 장서를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일을 맡게 되며, 여러 행사도 주관하게 된다.

관장은 교사생활을 마감하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형동(61) 장로가 맡았다. 늘 책을 가까이해온 박씨는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해 작은도서관준비모임을 찾아 공부했고 전국의 지역도서관을 탐방하기도 했다. 개관 준비에 발벗고 나선 그는 흔쾌히 도서관장직을 수락했다.

박 관장은 “풀꽃동산작은도서관은 지역민의 쉼터이자 ‘사랑방’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도서를 늘리고 다독자 표창, 독후감·백일장, 시화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이와함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62-654-431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가 흐르는 길, 광주-아시아’

광주아시아문화자원연구원준비위

23일 광주은행에서 콜로키움 개최

문화 자원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아시아문화자원연구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철 전남대 교수)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제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23일 오후 4시~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

‘문화가 흐르는 길, 광주-아시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종범 조선대 교수와 김익환 명지대 교수가 각각 ‘아시아의 빛, 광주누리 열두구비’와 ‘문화자원 아카이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희재(광주대), 홍성흡(전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문화 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하는 광주아시아문화자원연구원 준비위원회에는 이영석(광주대), 조송식(조선대), 이용주(광주과학기술원), 노시훈(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2-236-17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언론학회 지방선거 세미나

광주전남언론학회(회장 김덕모 호남대 교수)는 22일 오후 2시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지방선거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궁 협 동신대 교수가 ‘양질의 지역선거 정보제공과 지역방송’을, 이진로 영산대 교수가 ‘올바른 지역 선거문화 형성과 지역방송’을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과 관련해 대중매체, 특히 지역방송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전남언론학회는 “이 세미나가 지역방송의 선거보도 관련 역할은 물론 성숙한 선거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괴짜 피아니스트’ 빈하르트 독주회

27일 광주·29일 나주 문예회관

거쉬인 ‘랩소디 인 블루’ 등 연주

헝가리 출신 피아니스트 페터 폰 빈하르트 피아노독주회가 오는 27일과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과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솔로 연주자 뿐 아니라, 작곡가, 오페라 배우로도 활동중인 그는 평론가들로부터 ‘음악의 한계를 넘는 예술가로 실험을 즐기면서도 유럽 정통 클래식의 에센스를 잃지 않는 괴짜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고 있다.

독일 뮌스터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앱솔로트리오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 적이 있으며 광주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 에딘셀의 ‘바르샤바협주곡’,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하이든의 ‘소나타 작품 52’,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뇨’ 등이다.

티켓 가격 4만원, 3만원, 2만원.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